

“고마워요, 척” 삶이라는 이름의 우주



홍 경 안 의
시시일각

인간은 오래전부터 별을 죽음 이후의 자리로 사유해 왔다. 단테의 ‘신곡’에서 별은 영혼이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질서의 좌표였고, 고흐 역시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람들이 죽어서 별에 가는 것은 아널까 질문하며 삶 너머의 장소로 별을 떠올리곤 했다. 이 외에도 라이너 마리아 릴케를 비롯해, 구스타프 말러, 호안 미로 등 많은 예술가들이 별을 삶과 죽음의 기호로 다뤘다.

나 또한 유사한 상상을 한 적이 있다. 갑수성 풍부하던 유년 시절, 나는 검은 벨벳 위에 은빛 모래알을 흩뿌려놓은 듯 반짝이던 밤하늘의 별 하나하나가 이름 모를 누군가의 낯이라 믿었다. 그래서였을까, 그 시절의 내게 밤하늘은 거대한 장례식장이었다.

최근 개봉한 마이크 플래너건 감독의 영화 ‘척의 일생’ (The Life of Chuck, 2024)에서도 별은 주요 모티프다. 교사 마티가 그리워하던 펠리샤의 손을 잡고 맞이하는 세상의 끝에서도, 어린 척의 배경으로도 설

정된다.

우리는 보통 삶을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 서사로 이해한다. 하지만 스티븐 킹의 소설 집 ‘피가 흐르는 곳에’ (2020)에 수록된 동명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척의 일생’은 삶을 기억의 구조로 제시한다. 특이하게도 3막에서 1막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비연대 기적 구성이다.

그 중 3막 ‘세상의 종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재난 영화의 풍경과는 다르다. 어느 순간 밤하늘의 별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 불을 끄는 것으로 시작하여 마침내 완전한 암흑으로 뒤덮이는 장면은 그 어떤 물리적 폭발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여기서 사라지는 별들은 주인공 척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기억의 파편들이다. 그가 평생을 살며 품어온 내면의 우주다. 특히 뇌종양으로 인한 척의 죽음은 집단적 멸망이 아닌, 한 개인이라는 고유한 우주가 거행하는 퇴장의 의식이다. 우주는 개인 안에 있고, 한 사람의 삶은 하나의 세계라는 명제를 사유적으로 풀어낸 것이다.

실제로 영화는 월트 휘트먼의 시 ‘나 자신의 노래 (Song of Myself)’에 나오는 “나는 내 안에 다수를 포함하고 있다 (I contain multitudes)”를 빌려 말한다. 우리 각자

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수천 명의 사람과 수만 개의 풍경이 사는 거대한 우주가 있다고.

영화는 전반에 걸쳐 “고마워요, 척 (Thanks, Chuck)”이라는 표현을 반복한다. 이는 이별의 인사라기 보단 삶에 바치는 헌사가 가깝다. 39년이라는 길지 않은 생을 마감하는 평범한 회계사 척에게 세상이 건네는 이 말은 당신이 존재했기에 이토록 경이로운 세계가 가능했노라는 경의의 표시다.

새해다. 선행적으론 어제의 연속이요, 단지 신으로부터 삶이라는 길을 다시 걷도록 허락받은 것에 불과하다. 밤하늘 역시 어제의 그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죽음의 장례로 읽히진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아직은 한 개인의 소중한 기억이 단하지 않은 채 별들로 가득한 우주를 잠시나마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감사의 이유는 충분하다. 마티와 펠리샤처럼 사랑하는 이와 함께라면 더욱 그렇다. 설사 어느 날 갑자기 기억된 순간들이 사라진다 해도 그리 헛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빛은 꺼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이들의 기억 속으로 이동할 뿐이므로.

/미술평론가

이제 디지털자산은 ‘눈치게임’이 아니다



기지 수첩
신 하 은
(자본시장부)

지난달 증시에서 증권사들의 준비성이 확인됐다. 고점을 향해 가는 코스피와 상반되게 증권 업종은 전반적으로 차분했다. 다만 조용히 준비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갈라지고 있었다.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만 선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가의 등락보다, 누가 이미 다음 단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가 분명해진 시기였다.

증권사들이 찾는 ‘새로운 먹거리’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다. 기존 수익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적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지에 가깝다.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에 이어 디지털자산이 거론되

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증권사에게 디지털자산은 여전히 ‘해볼까 말까’의 영역일까. 적어도 요즘 시장에서 그 질문은 이미 과거형에 가깝다.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증권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 변동이 아니라 제도화다. 법과 규칙이 마련되는 순간, 디지털자산은 ‘하고 싶으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준비된 곳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토큰증권(STO) 법안 통과가 갖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회를 여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진입장벽을 세운다.

이 장벽 앞에서 증권사들의 출발선은 같지 않다. 대형사는 이미 인프라와 인력,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다. 디지털자산을 새로운 실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반면, 중소형사 대부분은 기존에 노출

됐던 사업에서만 성패가 좌우된다. 자본 여력과 조직 규모의 한계로 신사업 진입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디지털자산이 본격화될수록 증권사 간 격차는 단순한 성과 차이를 넘어, 사업 구조의 차이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발주자의 유리함은 단순히 먼저 뛰어 들었다는 데 있지 않다. 제도가 시행되는 순간, 시장의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시스템과 통제를 먼저 갖춘 곳은 규칙을 설계하는 쪽에 서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 규칙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자산 역시 단기적인 테마라기보다는 어떤 구조로 다음 사이클을 맞이할 것인지를 가르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증권사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 눈치를 보느냐, 준비를 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간극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

/godhe@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병오년 락별 신수 ①



오(午)는 자오(子午) 충이요, 묘유(卯酉)와는 형살의 기운이고 사유축(巳酉丑)은 합인 기운이다. 충(衝)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부딪히고 찌르는 기운이라 해서 달갑게 여기진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충의 기운이 안 좋은 흐름을 오히려 흔들어 놓기에 세운이나 월 운으로 오는 천간지지의 작용을 잘 살펴야 한다. 합(合)의 경우 역시 합이라 해서 반드시 길신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니 각자의 사주 구성에 따라서 적용의 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락별 적용 때에도 월 일 시의 상관관계를 잘 살펴야 하는 것이라서 통변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더 자세한 분석은 연월 일시의 상호작용을 살펴야 한다. 십이간지의 첫 번째인 쥐띠는 일단 자중자애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뭇가 변화를 추구하는 들쭉거림이 있는 해우년이 된다. 소띠들의 경우는 말과는 원인이 된다.

원인이란 뭇가 짜증이 나고 만족스럽지 못하여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발생하는 형국이다. 인내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움을 키워나가는 것이 지혜가 된다. 호랑이띠들은 말해를 만나 기운이 활발함을 느낀다. 말과는 합을 이루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자고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좋음을 느끼는 기분이다. 토끼띠들은 말과는 형 살의 기운이 일차적 이므로 돌발적인 일로 피곤할 수 있다. 순리를 따른다는 마음으로 과욕은 금물이다. 용띠들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 기어와 같은 흐름이다. 차분히 계획한 대로 성실을 발휘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기대할 만하다. 뱀띠들은 말과 함께 상승 분위기를 즐기는 모양새다. 적도마가 뛰니 같은 화기운인 뱀은 덩달아 힘이 난다. 해묘미(亥卯未),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늘 삼재에 해당되니 경계망동을 삼가고 정리·정돈하는 자세로 호흡을 가다듬는 마음가짐이 요구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2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3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